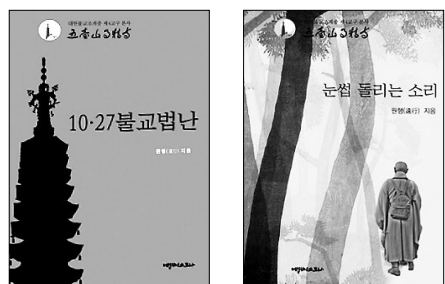


“권력이 종교 짓밟는 만행 반복돼선 안돼”

10.27 불교법난 눈썹 돌리는 소리

원행 지음 | 에세이스트 펴냄 | 각권 1만 5천원



▲10.27 불교법난

10·27불교법난이 일어난 지 35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군부 독재서 민주 국가로 이행했고, 신군부 전두환 정권 이후 5명의 대통령이 바뀌었으나, 10·27불교법난의 진상이나 피해 내용, 그에 따른 진정성은 사과나 보상 등, 그 무엇도 속 시원히 이루어진 게 없다. 1988년 노태우 정부 당시 불교계와 재야 단체의 노력 끝에 강영훈 총리가 10·27불교법난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2005년 8월 18일 노무현 대통령 때 '국방부 과거사 진상 규명위원회'가 발족되어 법난을 조사했다. 이후 법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국무총리 직속으로 '10·27불교법난 피해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가 발족돼 지금까지 활동중이다.

하지만 진상 규명도 대부분 수박 겉핥기였고 법난을 입안하고 주도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모르쇠로 일관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참으로 기이한 사건으로 남고 말았다.

이 책의 저자 원행 스님(사진)은 19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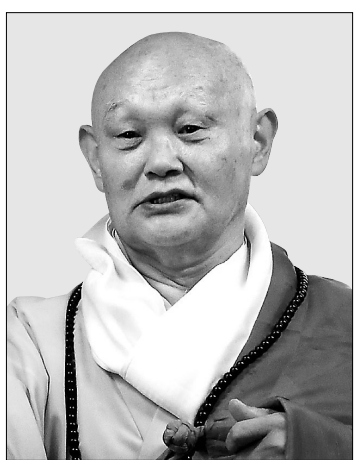
10월 27일 새벽 영문도 모른 채 강원도 원주의 보안사로 연행됐다. 다짜고짜 고문이 시작됐고 풀려나는 날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문과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 그때 고문의 후유증으로 지금도 다리를 절고 치아는 성한 데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출가자는 개인의 고통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호소해서도 안 된다는 믿음 하나로 그 사건의 기억과 충격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파묻어 두고 살아왔다는 것.

그러나 다시는 국가권력이 종교를 불법적으로 짓밟는 만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에 그 참혹했던 기억을 생생히 되살려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자기 육身に 가해진 그 무자비한 고문을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들에 대한 저들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무례를 잊을 수 없는 것이고, 대중들의 신성한 기도처인 부처님 도량을 짓밟은 무자비한 만행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 이제라도 만천하에 이를 폭로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우매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이 책을 저술했다.

기억서 벗어나기 위해 기억을 떨쳐내기 위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조금 더 치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처는 과거의 오류를 인식하는 순간에야 치유되는 것이며, 치유란 상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되살아나 오늘의 문제로 회귀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분석과 반성이 곧 역사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어떤 역사도 반성 없는 진화는 없다고 강변한다.

▲ 눈썹 돌리는 소리

탄허 큰스님은 그에게 원행(圓行)이란 법명을 지어주셨고, 또 그의 멀고 먼 구법의 행로를 예견한 듯 다음과 같은 휘호를 내리



10·27법난과 수행담 2권으로 묶어
주지 재임시절 포교 원력담도 소개
10월 27일 출판기념회 개최 열어

였다.

계간불능유득주(溪淵不能流得住) 경귀대해작파도(竟歸大海作波瀾)(계곡의 물은 쉽없이 흐르고 흘러 큰 바다로 들어가 파도치러라)

이 책은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에서 탄허 스님과 은사 만화 스님의 법통을 이어받은 원행(圓行) 스님의 멀고도 험난한 수행 일지다. 스님은 1980년 10·27불교법난을 겪고 1981년 월정사 본규사태를 겪고 1983년 탄허 스님과 은사 만화 스님이 한 해에 열반하시자, 제2의 출가길에 나서 가야산 해인사 성철 스님게로 가서 해인사 팔만대장경 장주 소임을 맡아 기도정진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법보전서 꾸준히 4분정근의 기도봉행 하던 동안

거 해제날, 늪지도 않고 책상 앞에 앉아 기도를 모시다가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었다. 월정사 대적광전이 모두 불에 타고 새까맣게 탄 법당 안에 흰 글씨가 뚜렷이 보였던 것이다. '법륜전지(法輪轉智)' 탄허 스님의 친필이었다.

그로부터 계룡산의 자광사로 가서 피폐된 절터에 3층짜리 법당을 불사하고, 동해 두타산 삼화사로 가서 880년대 조성된 철조 노사나불좌상(보물 제1292호)을 찾아 복원해 삼화사 주불로 모신다. 이 절불은 삼화사 마당가에 서 평도 안 되게 지어진 비좁은 전각에 시멘트로 대충 붙여놓은 채 '약사불'로 잘못 알려져 방치된 것을 원행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자마자 상호의 원만함을 예사롭침 않게 여겨 시멘트 대좌를 뜯어내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원주 치악산 구룡사 주지로 부임해서는 불교대학을 개설하고, 원주경찰서 경승실을 장엄해 불자 경찰들을 공부시키는 등 대중 포교에 힘썼다. 하지만 탄허 큰스님 열반 20주기 추모 행사 날 구룡사 대웅전이 누적으로 전소되는 위기를 맞는다. 이에 스님은 전소된 대웅전을 보고 식음전파해 기도 정진하던 중 기이하게도 사골 노부부가 찾아와 단돈 1만 원을 불사금으로 시주하면서 스님을 호되게 꾸짖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후 스님은 다시 중창불사를 하게 되는데 모든 불사의 인연이 이미 마련된 듯 순조롭게 불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월정사로 돌아와 부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지난간 구법의 과정을 회고한다. 책에는 이런 원행 스님의 일련의 포교와 수행 과정들이 파노라마 처럼 펼쳐져 있다. 한편 원행 스님은 10월 27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전통문화공연장서 출판 기념회를 봉행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hyunbul.com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인가?

달라이라마의 행복

달라이라마 · 하워드 C. 키틀러 지음
원행한 그림 | 김마나 옮김 | 1만 3천원



올해 80번째 생일을 맞은 달라이라마 가르침 핵심에는 언제나 '행복'이 있다. 거기에는 '나'와 '세계'를 아울러서 바라보는 진정한 무게와 깊이가 있다.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은 만한 넓고 깊은 통찰력을 느낄 수 있다. 글과 그림을 통해 그의 가르침을 접하고, 한번 더 깊이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책은 1998년 출간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의 기본 개념을 함축하는 구절들을 선별해 그 원칙과 정수만을 농축한 것이다. <행복론>처럼 큰 내용이 다섯 가지로 나뉘는 전체 열개에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발췌문을 약간의 수정과 함께 재구성했다. 그리고 원서 <The Essence of Happiness>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림을 추가했다. 국내 황중환 작가의 그림으로 글에 대한 이해에 한결 부드럽게 접근하고, 한번 더 깊이 사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했다.

<행복론>의 열 번째 기념판서 달라이라마가 "이 책의 목표는 인생에서 보다 큰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저마다 갖는 엄청난 내적 능력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확신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라고 쓴 것처럼, 책장을 넘기는 독자들은 진정한 행복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늘상 생각하며 알던 행복의 개념에 대해 재검토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준다.

달라이라마는 긍정적 행복을 위해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 다른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으려면 먼저 스스로를 깨어 있어야 한다. 내 안의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가장 큰 도구는 바로 '마음'이다. 그는 이 책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갈고 닦아 완성된 도구로 만들 수 있는지 알려준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인가? 행복이라는 타당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찾아 나서려는 결심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어놓는다. 우리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해줄 것이며, 우리는 습관처럼 매일 수련을 통해 행복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여야 한다. 행복을 갈망한다면 행복을 불러올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더 이상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원인과 상황을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 행복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지며 전염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사람의 온기와 연민을 가져야 한다. 자비롭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건강한 사람이다. 온화한 감정들은 우리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연민을 갖는다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원하지 않고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그다음으로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우리 현실에 만연한 소외감과 고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슴속에 연민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고통은 피하는 대신 직접 맞서는 쪽이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유리하다. 고통은 감정이입을 통해 연민을 느끼게 해주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도록 도와준다. 모든 고통에는 해결 방안이 있으므로 고통에 대한 성찰은 아주 중요하다.

다섯 주제 발췌문 수정해 재구성

달라이라마 가르침 핵심은 '행복' 사람의 온기와 연민 갖는게 중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바꾸고자 마음을 먹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강한 의지와 소망을 품는 일이다. 뜨거운 열정의 불씨를 지펴야 하며, 절박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절박감은 문제를 극복하도록 해주며, 꾸준하게 노력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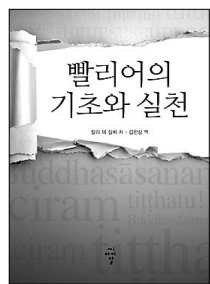
우리는 수동적이 되어서 안 되며 모든 것은 카르마의 결과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주도권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어떤 미래가 올 것인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행복의 비밀, 나의 즐거운 미래는 바로 내 손에 달려 있다고 달라이라마는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붓다의 언어, 빨리어 쉽게 배울 수 있는 학습서

빨리어의 기초와 실천

김한상 번역 | 씨아이알 펴냄 | 1만 8천원



이 책은 세계 각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초급 빨리어 교재이다. 문법 유형에 따라 총 32개의 <LESSON>으로 정리해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였으며, 도표와 관련 어휘를 풍부하게 실어 이해를 도왔다. 간단한 예문 및 다양한 연습문제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자연스럽게 빨리어를 학

습할 수 있다. 부록으로 빨리어 한글 색인 및 한글 빨리어 색인을 함께 실어 학습자가 효율적으로 빨리어 단어들을 확인하고, 빨리어 문법 도표를 통해 본문의 격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본래 붓다가 사용한 언어는 무엇일까 바로 고대 인도어인 팔리어이다. 이는 산스크리트어(Sanskrit)에 겹주어 속어 또는 사투리라고 불리는 프라크리트(Prakrit)의 하나로, 중기 인도 아리아어에 속하는 언어이다. 그리고 오늘날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서 폭넓게 신봉되는 테라와다 불교의 성전어이다.

우리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모른다고 기독교를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듯이,

빨리어를 모른다고 초기 불교나 테라와다 불교를 배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중에는 이미 현대어로 저술된 초기 불교나 테라와다 불교 관련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책들을 읽다 보면 무수한 빨리어들을 반복적으로 발견한다.

이 용어들은 사실상 문맥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의미들을 지니기 때문에 현대어로 정확히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워 종종 잘못 번역되거나 그 해석을 두고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초기 불교나 테라와다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빨리어 성전을 직접 강독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

이 책은 세계 각지에서 널리 사용되는 초급 빨리어 교재이다. 문법 유형에 따라 총 32개의 <LESSON>으로 정리해 자세하고 쉽게 설명했으며, 도표와 관련 어휘를 풍부하게 실어 이해를 도왔다. 간단한 예문 및 다양한 연습문제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자연스럽게 빨리어를 학습할 수 있다. 부록으로 빨리어 한글 색인 및 한글 빨리어 색인을 함께 실어 학습자가 효율적으로 빨리어 단어들을 확인하고, 빨리어 문법 도표를 통해 본문의 격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김주일 기자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세트
직경 8mm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I08 염주세트
직경 12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I08 염주세트
직경 10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이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장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선별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양초 세트 · 밀납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윽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양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잠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격 : 30,000원
· 크기 : 높이 18cm x 지름 6cm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납니다.

· 구성 : 6개 · 가격 : 30,000원
· 크기 : 높이 18cm x 지름 6cm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